

체장암의 現況, 頻度 및 原因

체장은 상복부에서 위의 뒷쪽에 가로로 위치하는 장기로서 그 길이는 약 10-15cm, 무게는 90-120gm 정도의 약간의 희색 또는 분홍색깔의 색조를 띠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그 기능은 트립신 등 소화촉진 작용을 가진 액을 분비할 뿐 아니라 당뇨병 발생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이장기는 편의상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분비물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 부위근방을 머리부분, 그 옆부분이 몸부분, 머리부분에서 제일 먼 곳을 꼬리부분으로 칭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의 신체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따라서 체장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종양은 그 성질에 따라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하며 체장의 경우도 외분비 세포와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악성종양은 외분비 세포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체장암이라고 함은 거의가 외분비 세포에서의 암을 의미한다.

중심으로, 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명단을 집계한 것으로 초기에는 66개 병원에서, 현재는 70개 병원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암의 현황이 거의 집계되어졌다고 봐도 무관하겠 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인에서도 체장암이 10대 암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여비는 1.5:1로서 남자에서 빈발하며 50대 이상에서는 전체의 약 80%가, 60대에서는 전체의

의 보고에서는 남자가 10위내에 들지 못했다. 물론 각 보고연도에 따라서 82년도 89년도간에 4개 병원의 보고소가 증가하고, 그간의 인구증가, 진단법의 개선, 병원이용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무튼 등 록된 체장암환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체장암이 남자에서 1982년에는 10대 악성종양순위에는 들어가지 않다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는 10

표1. 10대 악성종양의 남녀별 순위('83.7~'84.6)

순위	남		여	
	부위	명(%)	부위	명(%)
1	위	3,652(28.7%)	자궁경부	3,032(27.5%)
2	간, 간내담도	2,018(15.9%)	위	1,892(17.3%)
3	폐, 기관, 기관지	1,637(12.9%)	유방	960(8.7%)
4	조혈장기	548(4.3%)	간, 간내담도	532(4.9%)
5	방광	408(3.2%)	갑상선	500(4.6%)
6	직장, 항문	402(3.2%)	폐, 기관, 기관지	454(4.1%)
7	식도	366(2.9%)	조혈장기	395(3.6%)
8	대장	316(2.5%)	직장, 항문	380(3.5%)
9	후두	314(2.5%)	난소 및 부속기	317(2.9%)
10	체장	286(2.3%)	대장	267(2.4%)
총계		12,709(100.0%)		10,959(100.0%)

1. 체장암의 빈도 및 현황

암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생길 수 있으나 대개의 다른 암들과 같이 나이가 많은 연령에서 그 빈도가 높다. 체장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50% 이상은 그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녀비는 1.7:1 정도로서 남자에서 빈발하며 40세 이하의 낮은 연령에서는 1.5:1 정도가 된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30년대 보다는 최근 체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3배 정도 증가되며 인구 10만명당 2.9인에서 8.2인 정도 늘어났으며, 일본은 4배, 영국은 2배정도 증가되어서 구미에서는 암으로 사망한 원인중 5-6위를 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업화가 된 선진국에서는 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비해서 훨씬 그 빈도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연보와 보건사회부에서 집계한 한국인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 보고서가 있다. 보건사회부 발표의 한국인 암등록 조사는 1980년부터 전국의 수련병원을

약 50%가 보고되고 있어서 남·녀 성별 및 연령층에서의 발생빈도는 외국의 예와 비슷하였다.

표1에서 보면 1983년 7월에서 1984년 6월까지 1년간 집계된 총암등록환자 23,668명중 남자는 12,709명으로서 이 중 체장암환자는 286명(2.3%)으로 남자에서는 10위에 해당된 반면 여자에서는 10위내에 들지 못했다. 5년후인 1988년 7월 1일에서 1989년 6월 30일까지의 집계에서는 체장암이 494명(2.2%)으로서 그 순위는 9위가 되었으나 여자에서는 10위내에 들어가지 못했다(표2). 그러나 1982년 7월에서 1983년 6월까지

위였다가 1988-1989년에는 9위가 된 것을 보면서 그간의 진단수기의 향상, 짧은 기간 등을 미루어 빈도의 증가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주목할 만하다 하다고 하겠다.

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1980년부터 매년 한국인의 사망자를 진단명별로 분류한 통계표가 나오고 있다. 이 책자에서는 사인이 의사진단을 포함해서 분류가능한 것을 포함시켜서 보고한 바 체장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987년에는 749명, 1988년에는 935명, 1989년에는 1,038명으로, 매년 수적으로는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전체 악성종양에 대한 비율은 2.3-2.5% 정도였다. 이러한 성적의 판독은 앞에서 서술한 보건사회부의 암등록환자에 대한 의미부여와 유사하나 최근 노인층의 증가도 고려하여야겠다.

2. 체장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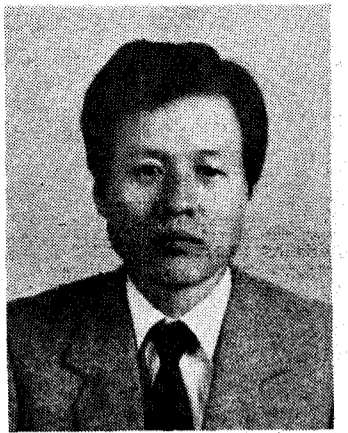
대개의 암들의 원인이 한개의 원인인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체장암의 경우도 한개의 인자로 설명하기 어렵다. 단지 이러한 요인들이 관여인자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1) 음식물로서는 고지방식이 체장세포의 증식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커피를 마시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또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술은 급성 및 만성체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와외의 관계도 시사되고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우든지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체장암의 빈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다. 아무튼 생활면에서 지나침은 좋지 않은 것 같다.

3. 체장암의 증상

체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단지 깊은 관심을 갖고서 계속된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하다. 체장암의 증상으로서 가장 빈번한 것이 복통이다. 복통은



鄭俊謨 (경북의대) 내과교수

대개 상복부 동통이며 그 성격은 둔통에서 저명한 것까지 다양하다. 시간이 지나면 체중감소가 생길 수 있으며 암이 머리부분에서 크게 되면 쓸개물이 내려오는 관을 막아서 황달이 생기게 된다. 황달이 생기면 몸이 간지럽든지 대변색깔이 회색빛깔로 될 수 있다. 진행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매스꺼울 수 있다.

이와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각종검사를 하게 되는데 체장암이 아니다라고 할때까지 경과관찰 및 반복검사를 필요로 한다.

死亡者 50% 이상 65세 이상이 대부분 일반인에 비해 糖尿病환자에게 급증

표2. '83.7.1~'89.6.30 기간의 10대 암의 남녀별 빈도

순위	남		여	
	장기명	건수	장기명	건수
1	위	6,650(29.2)	자궁경부	5,124(27.0)
2	폐	3,377(14.8)	위	3,437(18.3)
3	간	3,312(14.5)	유방	1,813(9.5)
4	대장	1,504(6.6)	대장	1,332(7.1)
5	조혈기관	782(3.4)	간	868(4.6)
6	식도	753(3.3)	갑상선	841(4.5)
7	방광	730(3.2)	폐	837(4.4)
8	담낭	575(2.5)	조혈기관	573(3.0)
9	체장	494(2.2)	난소	520(2.7)
9	후두	480(2.1)	담낭	444(2.4)
총건수		23,025	총건수	19,063



일본 제약시장을 1년만에 석권한 성인병 예방 치료제



메바로친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지방)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입니다.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는 동맥내벽에 생겨난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침착되어 소위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동맥내벽을 좁게 만들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와 합병증

● 뇌졸중(중풍)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줄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과 산소공급이 방해를 받아 생겨나는 질환으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심장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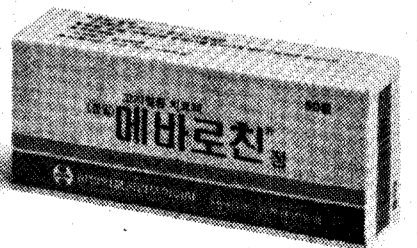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호흡곤란에 의한 통증 및 쇼크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 협심증

심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고 췌는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高콜레스테롤혈증 치료의 새로운 도전 "메바로친"

- 메바로친은 89년 일본에서 개발된 최신의약품으로 월 70억엔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인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설시킵니다.
-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장에서만 작용하여 타장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바로친

표준소매가격 : 55,000원(50T)

본제품에 대한 자세한문의는 본사 PM4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TEL:(02)464-0861 교환 584